

실비아 모저 - 음악의 파워우먼

나의 관한 한마디

"나는 주어진 재능과 모든 힘을 다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의식 개발이라는 의미에서 배우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양 부모가 오페라 가수인 딸로 태어난 실비아는 5 세의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문화의 길로 들어섰다. 그녀는 발레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아 국립오페라의 <보체크>와 <장미의 기사>에서 최초의 어린이로 데뷔했다.

음대에서 성악 공부를 마친 후 그녀는 국립오페라의 합창단에서 레너드 번스타인 (Leonhard Bernstein),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Herbert von Karajan) 그리고 조지 솔티 (Georg Solti)와 같은 유명한 지휘자 지도 하에 공연을 했다.

실비아는 1980 년에 '블루 다뉴브'라는 밴드와 함께 헤이그(Den Haag)에서 개최한 유로비전 송콘테스트에 참가해 "너는 음악이야"라는 노래로 오스트리아 대표로서 8 위를 차지하며 조금씩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어서 콘세르트헤바우 암스테르담, 슈투트가르트와 레겐스부르크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고 덴마크에서 여섯 차례의 순회공연을 했다. 이외에 ORF(오스트리아 방송국), WDR(독일 방송국), RAI (이태리 방송국) 및 헝가리 텔레비전을 위한 수많은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1998 년에 실비아는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남편 파울 모저와 함께 비너 레지덴스오케스트라를 창립하여 지금까지 연간 약 850 편의 공연을 다양한 공연장소 (팔레 리히텐슈타인, 팔레 아우어스페르크, 비엔나 콘체르트하우스, 비엔나 무직페르아인, 비엔나의 증권 거래소, 팔레 로브코비츠 등)에서 개최했다. 그녀는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태국,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했고 이탈리아에서는 심지어 오케스트라와 함께 마쿠스 광장에서 RAI 프로그램을 위해 라이브 공연도 했다.

실비아 모저는 2012 년에 <조작 대신 동기부여>라는 모토 아래 학교 개혁안을 작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그녀의 블로그 (www.sylviamoser.wordpress.com) 에서 볼 수 있다.

실비아는 많은 과학적 주제 및 대상, 특히 뇌 연구에 관심을 보인다.

그녀의 취미에는 다양한 음악 스타일의 감상, 독서, 등산, 수영, 스탠드업 패들링이 속한다. 청소년 시절부터 아주 열정적으로 미니골프를 쳤고 보다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여러 번 오스트리아 국가 챔피언까지 했다. 또한 세계적인 선장 자격증 (선박길이 20m 이상 / 운행 영역 4)을 소유하고 있으며 항해하는 것을 매우 즐긴다.